광주일보 제7기 독자위원회 3차회의

일시:2013년 6월 24일 장소:광주일보 회의실

광주일보 제7기 독자위원회가 지난 24일 오전 동구 금남로 2가 광주일보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이묘숙·노미향·박해천·박홍근·임효택·조미옥·김윤하 씨 등 본사가 위촉한 독자위원 7명이 참석했다. 독자위원들은 최근 보훈처의 임을 위한 행진곡 퇴출 논란을 선제적으로 보도해 5·18기념재단과 광주전남기자협회가 수여하는 5·18언론상을 수상하게 된 점을 축하하며 광주일보의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전망했다.

‘칭찬릴레이’ 통한 훈훈한 미담 기사 발굴 힘써달라

이묘숙 (아크갤러리 관장)

문화전당 법인화 우려스럽다
이를 막기 위한 해법 제시를

임효택 (광주시수영협회 전무)

고교생 막말 동영상 논란
현 교육제도 한계·모순 지적

박홍근 (포유 건축사사무소 대표)

‘광주폴리’ 대안없이 비판만
작가의도 시민들에 알려야

박해천 (조선대학교 부총장)

흉흉한 사건 문제점만 부각
시민들 불안감 더 키워

노미향 (광주지적장애인복지협회 사무국장)

장애인 양궁팀 창단 기사 눈길
지속적인 관심 가져주길

▲**임효택**=5월29일에 실렸던 순천 고등학생 막말 동영상 논란 기사가 현재 교육제도의 한계와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사건에 대한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 학생들의 인식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학교와 사회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기사였다. 특히 교육현장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 들여다보고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해서도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부모들이 자녀를 학원 보내고, 용돈을 넉넉히 주면 부모로서 역할을 다하고 바람직한 가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무관심이 원치 않는 불행을 초래한다. 가정에서의 소통 부재가 자아를 억누르고 결국 이러한 동영상 파문으로 폭발했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청소년 사건사고를 보며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대책을 찾으려는 노력이 아쉽다.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가정과 학교, 사회에 대한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기사였다.

스포츠 지면에서 비인기 종목에 대한 꾸준한 배려를 당부한다. 유명 선수들의 기사는 어떤 매체나 다루고 있지만 지역 내 비인기 종목 선수들의 소식은 찾아보기 힘들다. 광주일보 스포츠면을 폈을 때 알려지지 않았지만 묵묵히 훈련하는 선수들 기사가 나온다면 커다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아마추어 스포츠 근간을 위해 일정 지면을 꾸준히 유지해 주기를 바란다.

▲**박홍근**=‘아시아문화원류를 찾아서’ 시리즈를 보면 광주일보가 문화중심도시 사업에 발맞춰 콘텐츠 발굴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아시아문화중심도시’란 이름에 맞게 아시아지역의 신화·전설을 다룬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기대가 크다. 이러한 노력만큼 광주·전남 지역에서 발굴한 장소나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광주에 있는 광주폴리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을 주문하고 싶다. 광주폴리가 제대로 보존되지 못하고 원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는 것은 좋지만 당초 작가의 의도, 작품의 의미를 시민들에게 알리려는 노력이 아쉽다. 대안 없이 비판만 제기해서는 발전할 수 없다. 폴리가 어떻게 시작됐고 작가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는지 독자들에게 다시 한 번 정보를 제공해 작가와 시민, 작품과 시민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지금 설치된 폴리를 어떻게 활용해 나갈 것인지, 새로운 작품을 설치할 때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할지 대안을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

▲**박해천**=최근 광주·전남에서 흉흉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시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 충격적인 사건과 자극적인 보도가 넘치는 상황에서 독자들이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기사와 지면을 늘렸으면 한다. 요즘 신문을 펴면 온통 사회의 문제점만 부각된다. 돈 냄새·정치냄새가 진동하는 기사들이 만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문을 보는 이들이 언제 열어봐도 가슴 훈훈한, 미소 지을 수 있는 기사를 더 많이 발굴해 주었으면 한다. 예를 들어 부인을 간병하다가 지하철에서 숨진 채 발견된 안타까운 사연을 담은 기사는 정말 인상적이었다. 지하철에서 쓸쓸히 숨을 거둔 한 사람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자의 세심한 취재가 돋보였다. 이를 통해 가정의 소중함과 우리 주변 소외된 이웃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기사를 보며 자기 내면을 돌이켜 보고 마음의 평안, 삶에 대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노미향**=광주시에서 장애인 양궁팀을 창단했다는 기사를 보고 누구보다 기뻤다. 여전히 어렵지만 장애인체육현실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었다. 이번 양궁팀 창단을 즐거워하고 끝나지 않고 다른 분야로 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양궁 이외 종목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는 독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기사가 필요하다.

5월을 맞아 5·18관련 기사가 잇따랐는데 이 중 전두환 씨 추징금 관련 기사가 눈길을 끌었다. 연이은 기사를 보면 어떤 날은 추징이 가능해 보인다고 했다가 또 다음날은 어려울 것 같다며 오락가락하는 기사가 혼란스러웠다. 재산이 얼마이고 어디에 있을 것이라는 추정과 주장만 남발되는 모습이 답답하다. 자칫 국가적인 문제가 하나의 가십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 명확한 팩트를 찾기 어렵다는 사실은 이해한다. 하지만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며 속절없이 시간만 흐르는 상황이 도덕적 해이와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온다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란다. 돈이 없다고 버티면서 호의호식 하는 것을 지켜만 봐야 하는 국민이 얼마나 답답한 지 민심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불법적으로 모은 추징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광주시민이 행동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고 야당이 나서야 할 지점은 어디인지 혜안을 발휘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

▲**조미옥**=5월 달 ‘임을 위한 행진곡’제창부터 시작해서 일부 온라인 사이트에 게재된 전라도 비하 글이 많은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다.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 바친 영령들을 모독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 자체를 부정한 사건으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본 학생들이 “우리 국민은 일본의 역사 왜곡에는 분노하면서 왜 우리가 우리 역사를 왜곡하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선생님이기 전에 한 명의 시민으로서 다음 세대에게 정말 부끄러웠다.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왜곡, 해묵은 지역감정 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언론이 각성하고 일부의 몰지각한 움직임을 막아주기를 바란다.

여고생 두 명이 손을 묶고 동반자살했다는 소식은 정말 충격적이었다. ‘쉿 학교는 알고 있었다 동반자살 징후를’이란 제목이 한눈에 사건과 기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모든 책임을 학교로 몰아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학교가 학생을 책임지는 것은 맞지만 그 이전에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지 않으면 이 같은 불상사를 막을 수 없다.

언론이 청소년들의 비극적인 사건 단면만 볼 것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의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우리 학생들은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가슴 아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 중심에 광주일보가 있어주기를 기대한다.

지난 6월4일 18면 “자녀와 함께하는 나눔, 최고의 가정교육입니다”란 기사가 인상적이었다. 제목만으로도 부모와 자녀에게 충분히 교육적인 효과와 더불어 힐링을 주는 내용이었다. 희망적인 이야기가 알려질수록 재능기부에 동참하는 움직임이 활발해 질 것이다. 더 많은 사람이 재능기부의 즐거움을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기를 기대한다.

▲**이묘숙**=지역문화계의 커다란 관심은 문화전당 예술감독 선임 문제다. 지역 인사들과 언론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개인에 초점을 맞춰 문제를 제기하기보다 선정절차 등 과정에 대한 개선이 더욱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전당 법인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당법인화는 곧 토끼가 거대한 공룡을 업고 가는 꼴이다.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역의 언론들이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 광주시민은 법인화에 대한 움직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이 요구되는지 해법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

편집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하고 싶다. 대형 컬러 광고가 늘어나면서 독자들이 기사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졌다. 컬러를 사용해 독자들의 시선을 끌 수는 있지만 기사를 읽을 때는 오히려 혼란스럽다. 독자는 광고가 아닌 기사를 읽기 위해 신문을 본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김윤하**=지난 4~5월 핫 이슈는 광주일보가 단독 보도한 ‘임을 위한 행진곡’논란이었다. 지난 4월25일 사회면 톱에 실린 ‘보훈처 임을 위한 행진곡 알레르기?’부터 시작해 4월29일 ‘보훈처 임을 위한 행진곡 퇴출 계획 민주의원들 몰랐나 묵인했나’, 5월3일 ‘행진곡 끝내 퇴출시키나’는 국회와 지역민의 정서를 들끓게 만들었던 단연 돋보인 기사였다. 또 4월11일 1면 ‘5·18 33주년, 진혼의 사진전’, 5월21일 ‘부산에서 5월 광주를 기억하다’에서는 계엄군 출신 사진작가 등 10명이 부산에서 전시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을 담아 폭넓고 발 빠른 광주일보의 취재력을 실감했다. 게다가 5월21일 18면 서울대영상동아리 ‘생각을 담은 틀’의 5·18을 다큐멘터리 상영 기사도 독자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광주일보만이 보유하고 있는 당시의 수많은 자료사진을 일자별로 선별 게재해 5·18을 경험했던 독자에겐 당시의 상황을 회상하고, 젊은이들에겐 5·18의 진상을 알리는 좋은 기회를 만들었으면 한다. 아울러 당시 상처로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찾아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취재도 필요할 것이다.

조미옥 (나주 영산포여중 교사)

‘자녀와 함께 하는 나눔…’ 기사
교육적 효과와 더불어 힐링

김윤하 (전남대병원 홍보실장)

‘임을 위한 행진곡’ 단독 보도
광주일보 취재력 실감케 했다

/정리=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오천경매투자

경매 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매주 2시간, 3개월 스터디 합니다.
NPL과 특수물건만 전문 취급하고
실제 낙찰 사례 교육이고 1:1 개인 교육합니다.

교육비는 1,200만원이고
경매로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 드립니다.

단, 상담 후 결정합니다.

주, 오천경매 대표이사 최 선규 드림
문의 : 010-3605-5000